

## 1. 벽의 회화 – 석고 회화 & 색이 뚜렷한 회화 / 서있는 회화 - 흰 색의 회화

이는 존재 방식의 차이와 인식의 전환을 이야기 한다.

### A. 벽에 걸린 회화 (석고회화 & 합판 회화)

- i. 관람자와 거리를 두고 감상되는 이미지이다.
- ii. 보기위해 존재한다.
- iii. 석고 + 회화 (불완전한 상태를 보여준다)
  - 1. 완성된 혹은 완전한 회화가 아니라 과정이 반전되고 중첩되고 깨지며 흔적처럼 남은 어떤 것들이다. 이 석고 + 회화들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과 파괴 자체가 걸려있는 상태이다. (과정과 파괴는 스스로의 시간을 보여준다.)

### B. 공간에 서있는 회화

- i. 공간 속에 서있다는 것은 관람자와 같은 공간, 같은 공기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 ii. 색이 빠진 회화는 색을 잃은 본 모습 혹은 실존만 남은 존재로 보인다. 말그대로 그림자처럼 살아있는 존재.
- iii. 색은 사회적 인식, 감정, 기호, 이상, 환상, 시각적 인지 같은 것을 불러일으키는 회화의 응축된 에너지를 내뿜는다. 하지만, 그것이 빠지면 그저 형태만 남게 된다. 서있는 회화는 벽에 걸린 회화와는 다르게 색이 거의 다 빠져있다. 그렇게 응축된 에너지를 잠시 뒤로하고 실존에 존재하기 위해 존재하려 한발 내딛는다. 하지만, 그 흰색은 미묘한 변화가 여전히 남아있다.

## 2. 떠있는 바닥

### A. 살짝씩 흔들리고 삐걱한다. 바닥 위로 올라서는 순간 미세하게 우리 몸의 균형은 변화하고 긴장을 하게 된다.

- i. 과도한 불안정감을 주기보다는, 편안하게 걸을 수 있지만 약간의 긴장과 미세한 느낌을 부여한다.

## 3. (빛을 내는 & 진자를 품은) 기둥

### A. 회화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어떤(회화)세계 자체를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 B. 회화가 조형물처럼 기능하지 않기 위해 – 색과 붓질, 표면의 변화 시간성과 같은 근본적인 것이 빠지면 안된다.
- C. 살아 있는 세계는 흐트러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어색하고 때로는 충격을 준다. 진자의 움직임의 회화의 기둥이 지탱하고 있는 회화 세계의 시간을 보여줌과 동시에 스스로 숨쉬고 박동하는 진동을 만들어낸다.
  - i. 그렇게 회화와 회화의 세계는 관람자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천천히 변하고 그 시간을 살아간다. 자족적으로.
  - ii. 미세한 진자의 진동과 소리는 과도한 변화가 아닌 조용하고 점진적이다. 소리 또한 파괴적이지 않으며 조용히 변화한다.

#### 4. 감각의 전환

- A. 기둥과 떠있는 바닥을 통해 관람자는 신체적으로 회화의 세계에 진입하는 느낌을 받게 되고, 이는 매우 심리적이고 몰입적인 경험을 만든다.
- B. 공간을 넘어선 환영적인 회화의 세계로의 전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진다.

#### 5. 비유적 상징

- A. 기둥은 회화의 세계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회화 자체가 물리적이면서도 상징적이라는 의미를 살린다.
- B. 석고 회화(불완전한 회화)를 벽에 배치함으로써 완성된 회화가 아니라 흐름과 파괴의 흔적을 담은 회화는 회화의 미완성을 강조하며, 그 자체로 불안정하고 생명력 있는 느낌을 준다.

#### 6. 물리적 불안정성

- A. 떠 있는 바닥은 물리적 불안정함을 유도한다.
- B. 몸을 통한 감각적 진입은 동양의 자연스러움과 균형의 미학을 반영한 문화적 사유다.

회화를 단순히 확장하는게 아니라, 회화 그 자체를 세계로 삼아 기둥처럼 공간을 지지하고 떠있는 불안정한 바닥을 통해 감각적 불안과 균형을 몸으로 체험시킨다. 이 모든 것들은 신체를 깨우고 공간을 다시 느끼게 한다.

회화는 물질(지지체)과 환영(이미지) 사이에서 존재하며, 그 둘은 모두 유한하다. 이 유한성은 시공간 안에서 체험될 수 있다. 회화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변화와 소멸을 겪는 존재이다.

회화를 완전하고 영원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회화는 물질과 환영 사이에서 끊임없이 긴장하며, 물질의 소멸과 환영의 파편성 속에서 존재를 드러낸다. 회화는 언제나 유한하다. 지지체는 주변의 공간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썩고 파괴되며, 환영은 물질에 기대어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의미의 붕괴와 소멸을 겪는다.

이 유한한 회화의 세계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한다.

관람자는 눈으로 이미지를 감상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떠있는 바닥을 밟고 기둥을 돌아 움직이며, 회화적 세계를 신체적으로 건넌다. 신체를 움직이게 함으로써, 관람자는 단순히 회화는 보는 것을 넘어서 회화의 세계에 진입하고 들어서는 경험을 하게된다. 이 과정에서 회화가 가진 불안정성과 유한성을 체감하고, 균형을 잡고 걸음을 옮기며 직관적으로 체득하게 된다.

회화는 더 이상 고정된 사물이나 완성된 오브제가 아니다. (메를로퐁티가 말했듯,) 세계는 몸을 통해 드러나고 경험되듯 회화 또한 물질성과 환영성 사이를 오가는 지각의 장 속에서, 관람자의 신체적 체험을 통해 의미를 획득한다.

그러나 이 체험은 완전하지 않다. (장 퓌낭시) 이미지는 본질적으로 부재와 파편성을 가진다. 완전한 총체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결핍과 소멸을 향해 열려있는 상태로 존재한다.

회화는 닫힌 하나의 의미체로 제시되지 않는다. 대신, 환영과 물질, 지속과 소멸, 기억과 망각 사이에서 흔들리는 유한한 존재로서 회화를 드러낸다.

회화는 환영적이면서도 물질적이며, 생겨나고 끝에는 사라진다.

**진자를 품고 있는 기둥과 떠있는 바닥**은 환영적인 세계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물리적으로 불안정하고 균열을 품고있다. 기둥의 진자는 회화의 시간을 나타내고 기둥의 빛이 보여주는 기둥이 지지하고 있는 공기는 환영성을 띠지만, 떠있는 바닥은 관람자의 무게를 받으며 현실감을 상기시킨다. 회화의 환영적 세계를 암시하지만 떠있는 바닥과 균열된 물질은 환영이 지탱될 수 없는 물리적 한계를 드러낸다. 관람자는 이 둘 사이를 거듭해서 이동하며, 회화가 결코 완전하거나 안정적이지 않음을 신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공간 속에 서있는 회화들**은 더 이상 벽에 고정된 회화가 아니다. 관람자의 움직임에 따라 다르게 마주하게되고, 이동하면서 각 회화와 맺는 관계가 계속해서 변화한다. 이 과정은 회화가 하나의 고정된 환영이 아니라, 스스로 다가가고, 돌아보고, 우회하기를 강제함으로써 몸의 움직임과 시간 속에서 유한하게 함께하는 세계라는 점을 불러일으킨다. 그렇게 서있는 회화는 고정된 시점이 아니라 몸의 운동과 함께 생성되는 지각을 요구한다.

다시말해, 회화는 고정된 환영이 아니라, 관람자의 신체적 이동과 세계 속 관계 안에 있다. 또한, 서있는 회화는 하나의 고정된 의미나 형태를 가지지 않는다. 계속해서 움직일 때 계속해서 새롭게 드러나고 사라지길 반복하며 완성되지 않은 경험들을 남긴다. 그렇게 회화와 그 세계를 보여지지만 완전히 붙잡히지 않는 곳으로 인도한다.

2025.03

이종환